



LX-건설협회 도회 업무협약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박동수)는 6일 춘천시 후평동 LX 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업계 주요 현안 총선 공약에서 찬밥

건설협회 무자격자 규제 등 건의 정당 “업계 내부문제일뿐” 외면
업계 “당선자 확정되면 재요구”

20대 총선에서 건설업계 현안이 찬밥 신세다.

건설업계의 요구안이 ‘업계 내부 문제’의 이유로 각 정당 중앙당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방안은 야당에서 공약을 내놓았지만 현실화될지 불투명하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초부터 소규모 복합공사 폐지,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규제 개선, 무자격자 시공방지 강화 등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역 다툼 가능성이 높고 건설업계 내부문제라는 이유로 총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동계의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공약된 경우가 많다. 을의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건설노조가 각 당에 제시한 건설노동

자 적정 임금제도 도입, 건설공사 직접 시공 전면 확대, 건설기계 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은 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포괄적인 공정임금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정의당은 만성적인 임금채불 및 유보임금에 시달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제를 공약했다.

또 페이퍼 컴퍼니 해결 방안인 직접시공 전면 확대는 정의당에서,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선은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공약을 내세워야 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총선 이후 각 지역별로 당선자가 확정되면 다시 중앙회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올림픽경기장 연내 4곳 준공

강릉 아이스 아레나·강릉 하키·관동 하키·강릉 컬링 경기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개축중인 12개의 경기장 가운데 올해 4개 경기장이 준공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현재 신설,보완하거나 보수하는 경기장은 12개로 이 가운데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 하키, 관동 하키, 강릉 컬링 경기장 등 4개 경기장이 올해 준공된다.

강릉아이스 아레나와 강릉하키, 관동하키 경기장은 신설중이며 강릉 컬링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보완하고 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은 3월말 현재 62%, 강릉하키와 관동하키경기장은 63%, 강릉컬링경기장은 23%의 공정

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4개 경기장 준공을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모든 경기장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선알파인(62%),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69%), 강릉 스피드스케이팅(34%),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하키, 관동하키 등 6개 신설 경기장은 평균 5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기존 경기장을 보완·보수하는 보광스노경기장은 25%, 강릉컬링경기장

은 23%, 알펜시아 스키점프경기장은 48%,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은 2%,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2개 경기장 가운데 유일하게 옹평알파인 경기장만 착공하지 못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장 건설에 총 264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121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장 건설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백오인



도건설협·LX 업무협약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본부장 박동수)는 6일 오후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16.04.07(목)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LX강원본부, 공간정보 발전 협약 체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 왼쪽)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동수·오른쪽)는 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미래핵심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강원지역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강구 △상생을 위한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통한 공동의 발전 도모 △대의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회는 “공간정보 구축사업 등에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서 회원사의 건축, 토목 건설현장 공정관리 시 삼각점 등 지적 이용의 편리성이 커질 것”으로 말했다.

아하! 그렇구나

지분비율로 채무부담 약정 가능 여부

Q 공동수급체의 채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그렇다면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구성원들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것이라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가?

A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Y와 Z가 X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Y와 Z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Y와 Z는 각자의 부담분만 책임지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2월 국내건설 수주액, 지난해보다 36% '쑥쑥'

건협 집계, 11조447억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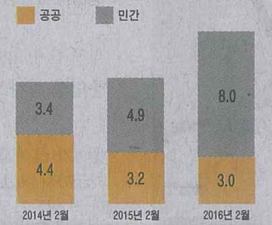
2월 국내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과 비교해서는 40% 넘게 급증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줄었지만 민간부문 수주액이 크게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6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의 국내건설 수주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1조4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846억원)보다 36.6% 증가했다. 1월(7조8815억원)보다는 4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월 국내건설 수주액은 최근 3년간(2014년 7조7752억원→2015년 8조846억원→2016년 11조447억원)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월 국내건설 수주액을 발주 부문·공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4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공공부문 중 토목은 종합심사낙찰제 발주물량 부진으로 대부분

최근 3년간 2월 국내 수주실적 추이 (단위: 조원)



공종에서 실적이 감소해 지난해 2월보다 38.3% 하락했다. 주요 공사는 △하남갈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산향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제2공구) 조성 등이다.

건축은 공공주택과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 공종이 지난해 같은 달 기저효과로 인해 106.4% 증가했다. 주요 공사는 △한류월드 M1,M2,M3 공동주택 개발사업 △한강신도시 Ac-07a 블록 주택 건설공사 등이다.

이에 반해 민간부문 수주액은 7조99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7% 급증하며, 2월 수주액 상승을 이끌었다. 민간부문 중 토목은 도로교량(민자) 공종

을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지난해보다 34.5% 줄었다. 주요 공사는 △(중액)삼성전자 평택 P-PTT 대기방지 시설공사 △상주~영천 고속도로 6차로 확장공사(민자) 등이다.

건축은 공업용 시설과 주택 신축·재개발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93.8% 증가했다. 주요 공사는 △LGD 파주 P10 건설공사 △거제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2월 수주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공부문은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공장설비와 주택 신축·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주요 상승 원인으로 하반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상반기 주택 발주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장설비 등 일시적인 대형 발주 물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반면 공공부문의 실적 감소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 낙찰제 세부기준 마련이 부진해 발주 물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